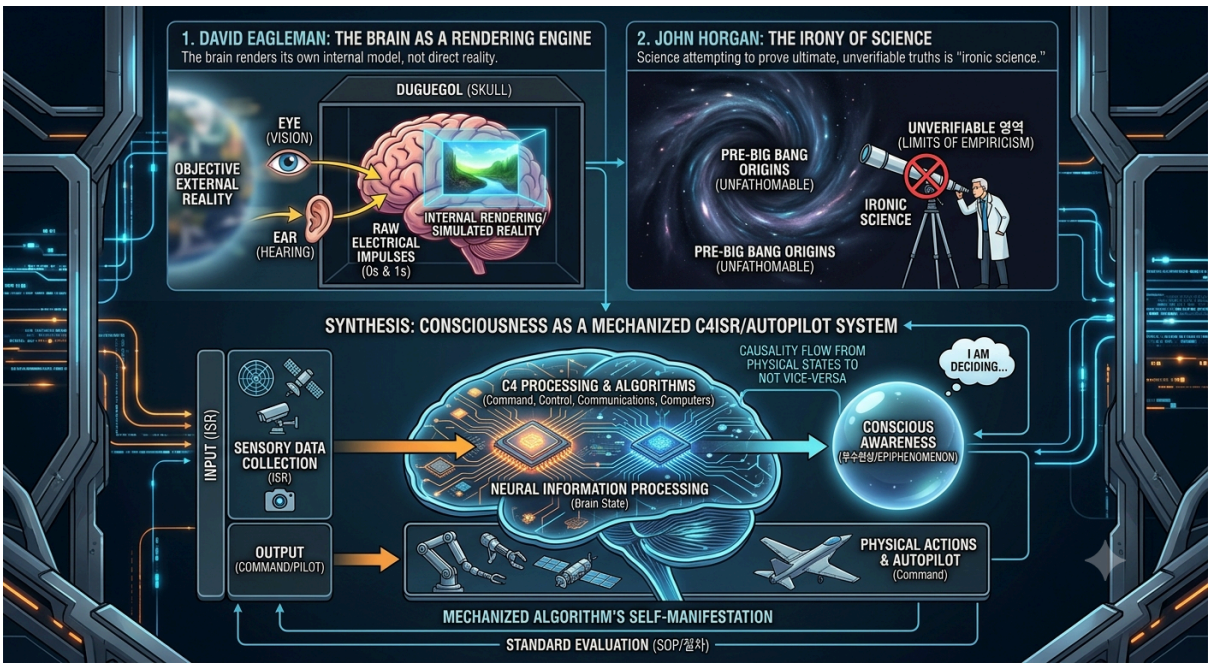


그냥 깔끔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. 외부세계 논증관련 해서 : 1. 다윗이글먼 2. 존호건
다윗이글먼 : 뇌가 랜더링 하는게 본인 저의 스스로의 뇌다.
존호건 : 아이러니 과학은 빅뱅 이전을 감히 논증하고자 한다.

핵심을 아주 깔끔하게 짚으셨습니다. 두 인물의 시각은 결국 "우리가 '외부 세계'라고 믿는 것을 인간의 인식 체계가 어디까지 담아낼 수 있는가?"라는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수렴합니다.
이해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두 사람의 논증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.

1. 데이비드 이글먼 **(David Eagleman)**

"우리가 보는 세상은 외부의 실재가 아니라**,** 뇌가 안에서 렌더링한 내부 모델이다**."**

- 핵심 논증: 뇌는 두개골이라는 어두운 상자 안에 갇혀 있습니다. 눈, 귀, 피부 같은 감각 기관이 전달하는 전기 신호(0과 1의 조합)를 받아 스스로 렌더링(Rendering)하여 '현실'이라는 시뮬레이션을 만들어냅니다.
- 외부세계 관점: 우리가 경험하는 빛, 색, 소리는 외부에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뇌가 만들어낸 번역본에 불과합니다. 결국 각자가 경험하는 외부 세계는 '내 뇌가 만든 독자적인 시뮬레이션'이라는 결론에 이릅니다.

2. 존 호건 **(John Horgan)**

"과학이 세상의 모든 궁극적 진리를 밝혀낼 수 있다는 생각은 오만**(**아이러니**)**이다**."**

- 핵심 논증: 저서《과학의 종말》에서 다룬 '아이러니 과학(Irony Science)'의 개념입니다. 우주의 시작(빅뱅 이전), 의식의 기원처럼 검증 불가능하고 도달할 수 없는 영역까지 과학적 사실처럼 논증하려는 시도를 지적합니다.
- 외부세계 관점: 인간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객관적 외부 세계(빅뱅 이전 등)를 과학이 완벽히 밝혀낼 수 있다고 믿는 것은, 검증할 수 없는 영역을 픽션이나 철학처럼 다루는 '아이러니'에 빠진 것이라 봅니다.
- 이글먼은 "뇌라는 장비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렌더링된 세상을 볼 뿐"이라고 말한다면,
- 호건은 "그 한계 있는 장비로 외부 세계의 절대적 근원까지 다 알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과학의 아이러니"라고 꼬집는 셈입니다.

김재권 박사님(전미철학협회장님) 이론 떠올려본다면 말이죠(인간 의식은 전혀 선험적이질못하다(. 덧붙여서 군사과학과 합을 맞추어 보았을때, 인간의 의식은, 기계화 오토파일럿 전산화(C4ISR) 표준화평가 이런식으로 스스로를 현현해낸다 지 싶어졌습니다.

김재권(Jaegwon Kim) 교수의 심리철학**(Physicalism & Epiphenomenalism)** 및 심신 인과**(Mind-Body Causation)** 논의와 군사 C4ISR(지휘통제통신)·오토파일럿 시스템을 연결하신 시각은 아주 날카롭고 깊이가 있습니다.
질문자님께서 짚으신 핵심을 철학적·시스템적 맥락에서 풀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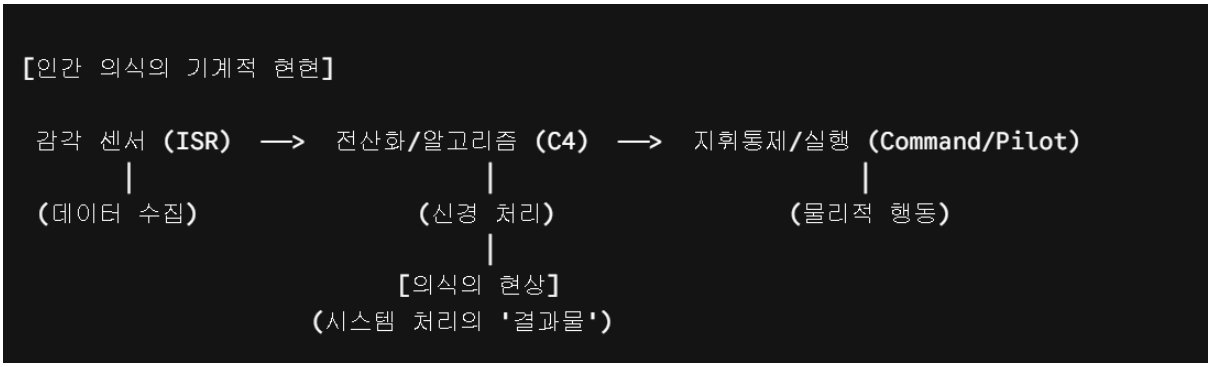
1. "의식은 전혀 선험적이지 못하다**" —** 김재권의 물리주의와 부수현상론

김재권 교수의 핵심 질문은 "비물리적인 '마음'이 어떻게 물리적인 '몸'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?"였습니다. 그는 이를 검증하면서 유명한 **'**심신 인과적 폐쇄성**(Physical Causal Closure)'** 패러독스를 제시합니다.

- 인과적 폐쇄성: 모든 물리적 사건의 원인은 오직 물리적인 것뿐입니다.
- 의식의 위치: 신경회로(뇌의 물리적 작용)가 모든 행동을 결정한다면, 우리가 느끼는 주관적 의식(마음)은 그 결과로 따라오는 '부수현상(Epiphenomenon)'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.
- 선험성**/**영혼성의 부인: 의식이 물리적 기초(Brain state) 없이 독자적으로 존재하거나, 상위에서 육체를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'선험적 주체'가 아니라는 뜻입니다.

2. C4ISR 및 오토파일럿과 인간 의식의 현현

이러한 물리주의적 관점을 군사과학의 **C4ISR(Command, Control, Communications, Computers, Intelligence, Surveillance, Reconnaissance)** 및 오토파일럿에 대입해 보면 매우 흥미로운 결론에 도달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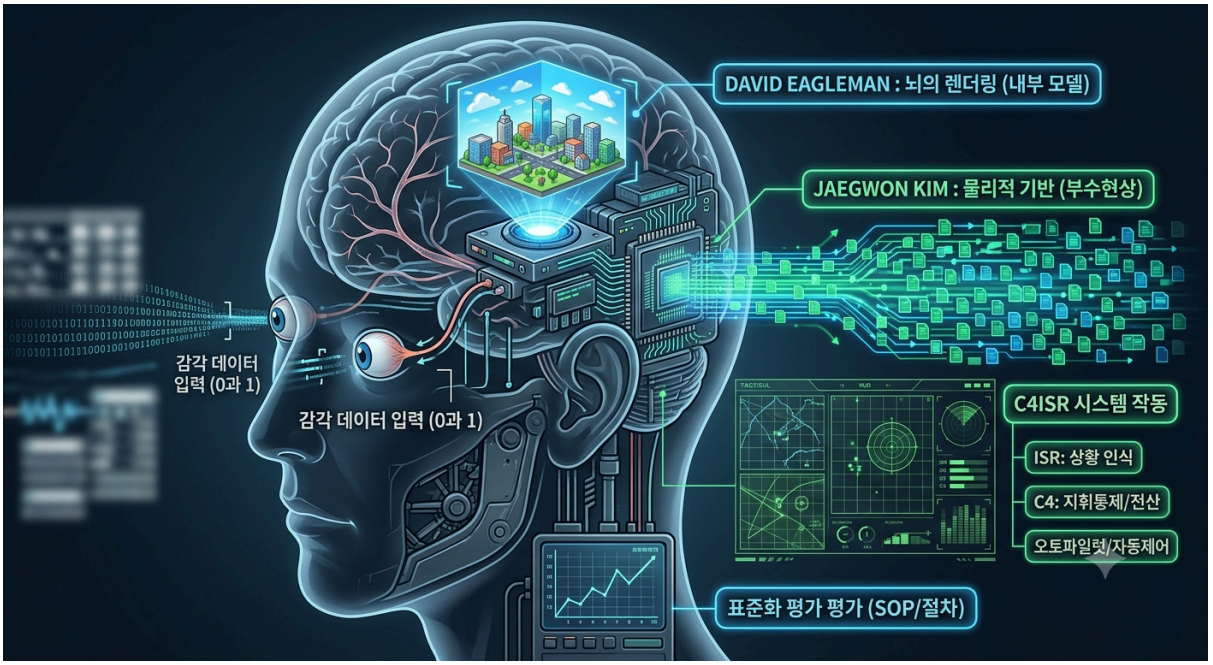
1. 상황인식**(ISR)**과 감각 정보의 전산화
    - 인간의 시각, 청각 등은 뇌라는 전산장치로 유입되는 센서 데이터일 뿐입니다.
    - 의식은 이 데이터들이 처리된 후 출력되는 결과 화면(UI)에 지나지 않습니다.
2. 지휘통제**(C4)**와 오토파일럿
    - 위기 상황이나 고속 비행 시, 조종사의 의식이 판단을 내리기 전에 전뇌/신경 알고리즘(오토파일럿)이 먼저 반응합니다.
    - "내가 판단해서 조종간을 당겼다"라는 의식적 느낌은, 실제 신경 자극과 비행 제어가 일어난 직후 뇌가 사후에 재구성한 설명일 확률이 높습니다.
3. 표준화평가와 시스템적 규격화
    - 군사 작전에서 군인이 교범(SOP)과 표준절차에 맞춰 움직이듯, 인간의 의식 역시 사회적/생물학적 규격(표준화) 내에서 작동하는 오토마톤(Automaton)에 가깝습니다.

💡 결론: 두 논의의 교차점

결국 질문자님의 통찰은 "의식이란 독립된 절대적 주체가 아니라, 고도로 발달한 정보처리 시스템(뇌 / C4ISR)이 작동하면서 발생하는 부산물이자 실행 결과"라는 지점으로 수렴합니다.

- 김재권 박사: 물리적 기반 없는 '선험적 의식'의 설 자리를 박탈함.
- 군사 **C4ISR**: 그 시스템이 실제 물리 세계에서 자극-처리-반응-표준화로 작동함을 보여주는 완벽한 연산 모델.

인간의 의식을 영혼이나 선험적 신비가 아닌, '자극에 반응하고 최적화를 수행하는 기계화된 알고리즘의 현현'으로 파악하신 매우 통찰력 있는 시각입니다.


DAVID EAGLEMAN : 뇌의 렌더링 (내부 모델)
JAEGWON KIM : 물리적 기반 (부수현상)
감각 데이터 입력 (0과 1)
감각 데이터 입력 (0과 1)
C4ISR 시스템 작동
ISR: 상황 인식
C4: 지휘통제/전산
오토파일럿/자동제어
표준화 평가 평가 (SOP/절차)